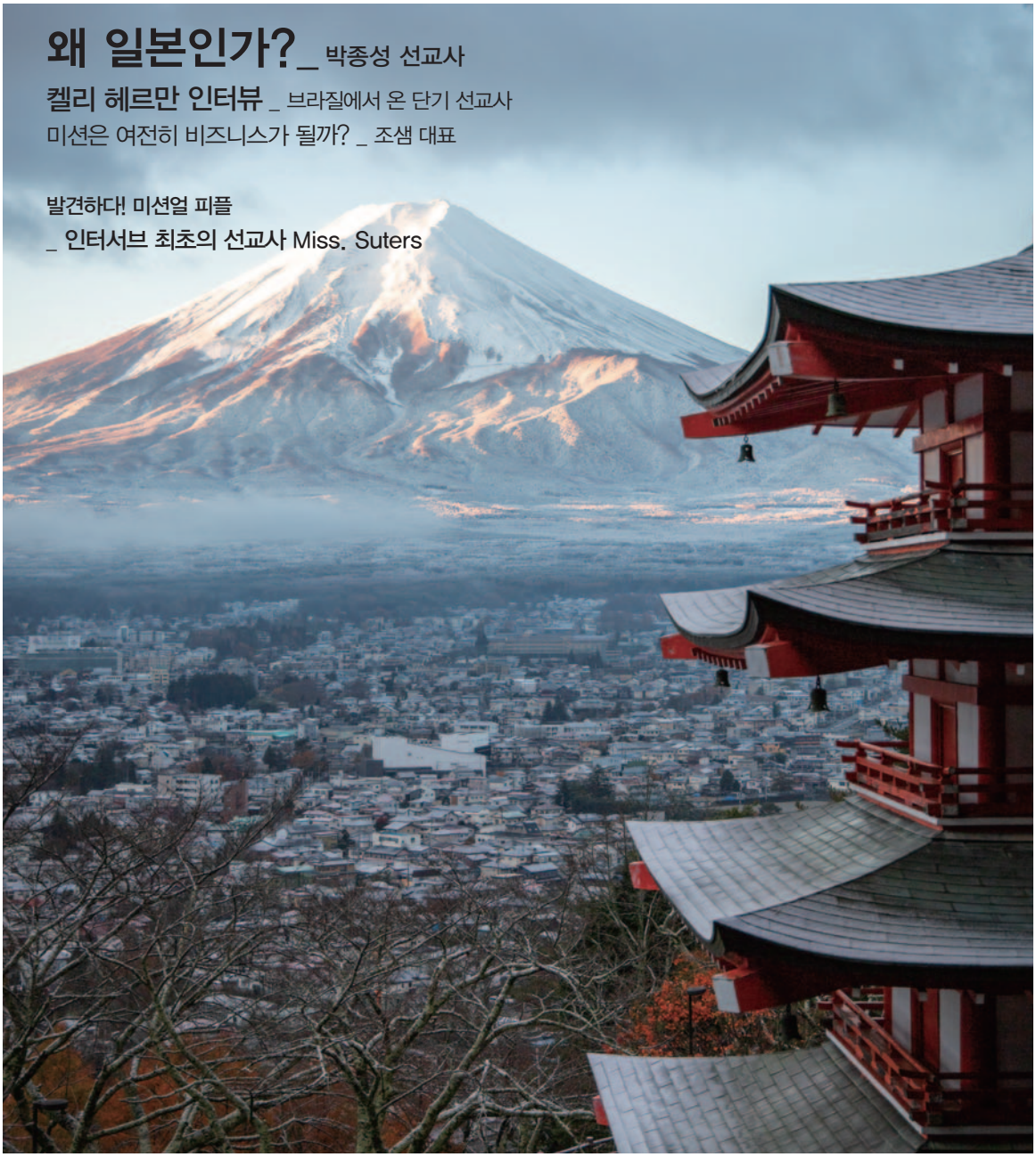
experience
Life As Mission
146th. Winter. 2022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인터서브 프렌즈



왜 일본인가? _ 박종성 선교사

켈리 헤르만 인터뷰 _ 브라질에서 온 단기 선교사

미션은 여전히 비즈니스가 될까? _ 조샘 대표

발견하다! 미션얼 피플

_ 인터서브 최초의 선교사 Miss. Suters

Interserve

Merry
CHRISTMAS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해 보세요.

Interserve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04 **미션은 여전히 비즈니스가 될까?** _ 조샘 대표
07 **미션앤펠로우 모임 리뷰** _ 김형철 총무, 도경오, 이길상 펠로우

People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
Interserving People

10 **미션얼 패밀리** _ 켈리 헤르만
15 **발견하다! 미션얼 피플 : Miss. Suters** _ 공갈렙 선교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18 **인터서브 필드 : 일본**
21 **인터서브 스토리 : 왜 일본인가?** _ 박종성 선교사
25 **2022년 인터서브 하이라이트**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시 스테플러 심을 제거해주세요.

인터서브 칼럼

미션은 여전히 비즈니스가 될까?

조샘 대표

인터서브는 올해에도 여러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급으로 적은 선교사 지원으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미션은 여전히 비즈니스가 되는 걸까?"**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시골에서 치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호주 선교사가 고민을 나눴습니다. 지역 농부 가족과 함께 지난 수년 동안 염소를 키우고 질 높은 치즈를 만들어 팔아왔으나, 영 타

산이 맞지 않습니다. 장기적 마진이 나려면 대량생산을 해야 하는데 노동력에서 구멍이 나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청년들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선호하는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등이며, 갈 수 없을 때 러시아로 가서 2~3년 돈을 벌고 옵니다. 고급 치즈 가공 훈련을 시켜도 자주 이직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와 대화하며 아주 기본적인 세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수요 즉, 마켓이 있는가?" 마켓은 비즈니스의 출발점이자, 비즈니스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큰 규모의 고객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치즈 맛있어요'로 되지는 않습니다. 들어보니, 이곳은 프랑스 고급 치즈가 판매될 정도의 구매력이 있었습니다. 브랜딩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만드는 치즈의 질은 높고, 시장 역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공급 능력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치즈의 양과 질을 만들 수 있나? 핵심인력의 치즈 제조 기술은 충분히 무르익어 있으나, 대량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곳 젊은이들은 유목민 기질이 있어서 해외 자체를 나가고 싶어해요." 과연 그럴까요? 이직률이 높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을 러시아 수준에 맞춰도 이직이 높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머물겠죠."

세 번째 질문은 가격입니다. "그 임금 수준을 주고도 마진을 맞출 수 있나요?" 다시 묻자 선교사는 곰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답이 나오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 이 비즈니스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개선함에서 일단 이 모델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 혼자 있을 때, 이 대화를 선교 동원과 연관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선교 자원이 마르고 있어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어요. 좋은 친구들은 전부 자기 살길을 찾아서 떠났어요." 시니어 자원들은 어떨까? 경험과 경력이 쌓인 오십대 중후반은 아직 10년 이상을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선교 동원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수요, 공급, 가격이라는 경영적 프레임으로 이 본질을 생각해봅니다. 하나, 타문화 선교의 수요는 여전히 있나? 즉 선교사들은 여전히 필요한지 질문해 봅니다. 선교의 방향은 지난 이십여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과 삶을 통한 변혁적 선교, 선교사 중심이 아니라 현지 교단과 교회와

함께하는 협력적 선교,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관계와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의 선교 등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혁적 삶을 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제자들의 성장입니다. 그 제자도는 대량 생산으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도는 종교적 세팅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상황을 요구합니다. 그 제자도는 함께 하는 친구를 통해서만 전수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자도입니다. 이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여전히 타문화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할 친구들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선교의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이런 필요를 채울 사람의 공급이 가능할까요? 저는 컨퍼런스에서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U국 오지로 들어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용감한 한국인 싱글 자매, K국 강성 무슬림들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현지 의사들을 훈련하고 제자운동을 하는 젊은 미국 부부, T국 산골 깊은 곳에서 2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과 살며 양봉과 치즈를 만드는 호주 가족 등등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온 것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문화선교에 부름받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신 이들이 열방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이 소명을 받을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셋, 이들이 다른 일을 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타문화선교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준비 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가치는 'Priceless'라는 영어표현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비즈니스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열방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은 복음을 온 삶으로 증거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렇게 준비가 된 이들을 만나고 선교의 귀한 가치를 소통함으로써, 이 부르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인터서브는 내실을 다지고 한국교회를 도와왔습니다. 이제는 타문화 선교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에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인터서브 혼자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터서브의 프렌즈들과 파트너들이 함께 힘을 합쳐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션앤펠로우 모임

인터서브 펠로우, 인터서브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

김형철 총무

인터서브는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보통 사람들의 선교적 삶을 깨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터서브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 비선교사 회원들의 역할은 전에 없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총회를 통해 비선교사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자신의 일상과 직업을 통해서 인터서브의 선교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비선교사 회원인 인터서브 펠로우는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명명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인터서브의 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예상보다 많은 펠로우들이 인터서브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펠로우들의 공식적인 첫 모임인 '미션앤펠로우'를 진행하였습니다. 30여 명의 새로운 펠로우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인터서브 펠로우로서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철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로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샘 대표가 인터서브의 구조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펠로우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인터서브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지,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번 펠로우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펠로우의 이야기 1

기도하고, 섬기며, 홍보하며

인터서브 펠로우 **도경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이사'에서 '펠로우'라는 이름으로 바뀐 후 첫 모임을 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영상을 통해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펠로우라는 이름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공청회도 참석했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조샘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에 많은 도움도 되었고 선교사와 함께 인터서브를 구성하는 한 축의 역할도 잘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손수 그리신 어여쁜 그림으로 인터서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도 다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인터서브라는 또 다른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내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모임을 통해 다른 지역의 귀한 펠로우분들과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나눔과 친교를 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호칭이라는 것이 단순하지만 가끔은 큰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펠로우라는 호칭이 주는 가장 첫 느낌은 이사라는 호칭보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친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다 많은 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부담감도 가지도록 합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일하는 곳에서 펠로우라는 호칭이 전문의 과정을 마치거나 박사과정을 마친 후 전문성을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기간에 붙여지는 호칭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랜만에 2016년에 제가 작성했던 이사 헌신문과 서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호칭은 바뀌었지만 헌신하는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고Pray 섬기고Provide 홍보하는Promote 펠로우로 살아가기를 다짐해봅니다.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인터서브 펠로우 **이길상**
(주)이퀄썸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이길상이라고 합니다. (주)이퀄썸이라는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온/오프 솔루션 기업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사역적/조직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교회와내일이라는 단체의 공동발기인이자 전문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인터서브코리아 BAM 전문위원으로 저를 임명해 주셨지만, 지난 4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여한 것이 없는데 펠로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펠로우 제안받았을 당시, 마침 미국 LA 씨드교회 사역자님들을 대상으로 조직 코칭을 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앞으로 인터서브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오병이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션앤펠로우 모임까지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줌 화면 한 번에 담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펠로우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속에 얼마나 다양한 삶과 일로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을까 상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도전받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2부 소그룹으로 모임 방은 비록 첫 만남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어쩌다 진행을 맡으신 부산 총무님의 정감 있고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한분 한분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시는 선생님,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기업체에서 일하면서 다음 창업 스텝을 준비하시는 선생님, 평생 교사로서 일하시고 정년 퇴임하신 뒤 선교의 일을 돕고 계신 선생님의 짧은 소개 말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만남과 교제와 동역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미션얼 Family

켈리 헤르만

Missional Family

하나님이 부어주신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득 안고
첫 '외국인' 온트랙커(단기 선교사)가 왔습니다.
한 달이란 짧은 기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켈리를 만나봅시다!

Q1. 인터서브 식구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켈리 크리스티나 헤르만입니다. 저는 28살이고 브라질의 작은 마을에 있는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6~7년간 약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 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Q2. 대학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한번도 예수님을 직접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제가 조언이나 기댈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저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진솔하게 성경에 기반한 진실들을 이야기해주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가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속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대학 생활도, 파티도 아닌 그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내가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Q3. 선교 여정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 약사로 일하다가 플로리아노폴리스 기도의 집에서 6개월 동안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코스로 리우데자네이루로 짧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혹시 파벨라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집을 짓고 사는 곳이예요. 그곳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하시면 이 일을 위해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니 재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는 저를 후원해주는 교회나 후원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소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사로 평생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교회 목사님과 나누었고, 목사님께서는 선교사가 되는 준비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타문화권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인턴십으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면 저는 졸업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나라로 가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 인천 공항에 입국한 켈리

Q4. 인터서브와는 어떻게 연결 되셨어요?

》 학교를 통해 인터서브를 소개 받았습니다. 브라질 인터서브가 학교와 가까이 있어서 인터서브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그분들의 간증과 인터서브의 역사를 들으며, 선교지에서 약사로 살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약사로 일하면서 당면한 브라질의 의약계는 충격적이게도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돈을 착취하는 부패와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잊혀지고 본인의 목소리를 잃은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은 약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Q5. 선교지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저도 정말 한국에 오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이미지를 보고 관심이 생겨 한국을 구글로 검색해보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몇 시간이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점점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점차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면서 한국의 경제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높은 자살율에 대해서 보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굳건한 교회들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자살율이 높을 수 있을까? 이게 잘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인 빈곤율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했고,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브라질 오피스와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한국, 중국, 일본 중 한 곳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오피스에서는 한국에 연락해보겠다 했습니다.

▲ 인터뷰 중인 켈리

▲ 북촌 마을 방문

저는 하나님께 이게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와도 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에서는 제가 한국의 다문화 사역을 돕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과 교회 안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슬림들과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훗날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무슬림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 경험 역시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을 통해 제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6.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가요?

》 한국의 젊은 세대들을 만나거나, 탈북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왜 한국의 사회 문제들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도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곳에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 다문화 교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켈리

어쩌면 좀 씁쓸한 경험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와 사람들은 한국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내시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제 마음속에 간직한 이런 이슈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나 제가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Q7. 한달 간의 짧은 경험이지만,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좋을까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서로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잘 받아드릴 수 있는 사람. 저 역시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문화차이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어려움에 압도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른들에게 대할 때와 아이들에게 대할 때 예절이 달라 가끔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Q8. 한국에서의 경험이 켈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 같나요?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서로 다름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당면해도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Missional People

Miss. Suters

인터서브 최초의 선교사

공갈렙 선교사

서터 집안 자매의 파송

OMF 선교회의 창시자이자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나 WEC 선교회를 시작한 C.T. 스터드는 선교 역사 속에 각인된 인물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은 이들의 삶과 사역을 읽고 들으며 선교적 도전을 받습니다. 위의 두 선교회보다 먼저 생긴 국제선교단체인 인터서브에서는 그런 인물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1852년 3월 1일에 개교한 캘커타 교원 양성 학교에서 사역하기 위해 두 명의 여성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아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서브의 창시자인 메리 키너드 여사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 듣는 정도입니다. 키너드 여사는 단체를 세운 선교 행정가였지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최초로 선교지에 들어갔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인터서브 최초 선교사는 서터 집안의 친자매 'Miss. Suters', 서터 자매들입니다. 현재 가용한 자료에서 전체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두 서터 자매가 인터서브의 최초 선교사입니다. 본 글은 그 최초의 두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 합니다.

서터 집안의 첫째 딸이 선교사의 소명 가지고 인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결혼하지 않은 딸을 홀로 인도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딸 중에서 누구든 함께 가고자 한다면 안심하고 보내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넷째 딸이 첫째 언니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캘커타 교원 양성 학교에서 큰 언니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두 자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인터서브 역사 속에선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쌍둥이 제나나 선교회?

혹자는 인터서브는 한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고, 인도 여성과 아이들을 섬겼던 여성 싱글 선교사들의 사역에 더 조명했기에 최초의 인터서브 선교사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초기 여성 선교사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우연히 다른 단체의 제나나 선교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나나 성경의료 선교회(ZBMM)의 자매단체인 영국교회 제나나 선교회(CEZMS)의 자료에서 인터서브 초대 선교사였던 서터 자매를 발견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강국으로서 전 세계 식민지를 경영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최정점에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 소속으로 제나나 선교회를 운영하고자 했던 그룹과 초교파 단체로 남

기를 원했던 그룹이 갈등이 일어났고, 성공회 소속 제나나 선교회와 초교파 제나나 선교회를 각각 따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두 단체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공회 소속은 영국교회 제나나 선교회(Church of England Zenana Missionary Society, CEZMS)고, 기존 초교파 제나나 선교회는 제나나 성경의료 선교회(Zenana Bible and Medical Mission, ZBMM)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체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서로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도라는 넓은 사역지를 두 지역으로 분할하여 담당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캘커타를 포함한 벵골 남부, 남인도 지역을 CEZMS에서 담당하고 인도 북서부, 북부, 중서부 지역을 ZBMM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인터서브 역사에서 주로 북인도와 북서부, 중부 지역에 사역이 편중되어 있고, 인도 남부 지역에서 사역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당이냐? 아볼로당이냐?

그렇다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명의 서터 선교사에 대한 기록은 왜 찾기 힘든 것일까요? 큰 언니 서터는 당시 캘커타에서 성공회 목사와 결혼하게 되면서 선교회 내규에 따라 2년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셀 목사와 결혼한 그녀는 하셀 부인으로 성공회 선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1880년 CEZMS가 설립되자, 이사로 참여하며 제나나 선교를 위해 노년까지 수고하였습니다.

비록 초교파 단체로 남은 ZBMM과 결별한 CEZMS에서 사역했지만, 인간이 만든 단체의 차이였을 뿐 그들은 인도 여성과 아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최초의 인터서브 여성 선교사 서터 자매는, 향후 하셀 부인으로 제나나 선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영웅이 되기보다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섬김의 방식이나 사역지, 소속 단체, 대상이 바뀌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총체적 선교라는 삶을 이어가며 다른 이들과 기꺼이 동역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할 것입니다.

일본 인터서브의 새로운 사역지, 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500만 명에 달하지만, 크리스천 인구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치면에서나 종교 면에서나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고 비자 제한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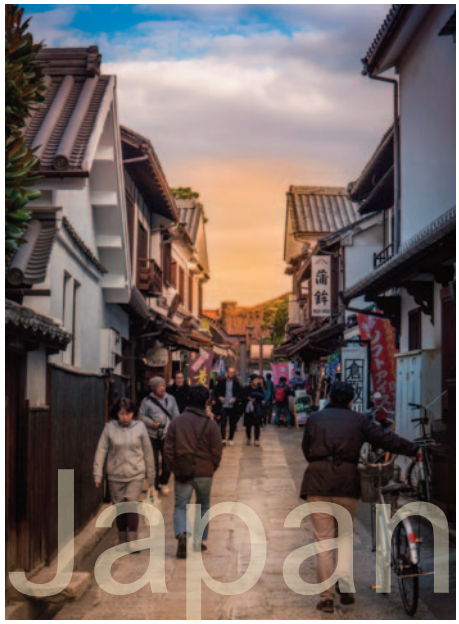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일본인의 대다수는 불교나 조상과 자연을 섬기는 일본 종교 신도를 믿지만, 자기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배타성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의 전통 교회는 회중과 지도자의 연령이 매우 높고, 성도와 리더들의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일본 교회의 상황

일본 교회의 역사는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도 교회는 더디게 성장해왔습니다. 1945년 이후, 초반엔 서구로부터 나중에는 한국에서 대거 유입된 기독교인들이 일본에 들어와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교회 중 70%는 주일 예배 참석 교인 수가 30명 미만인 소형 교회입니다. 전체 일본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리더십과 멤버십 역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전 총리인 아베 신조를 총격한 범인이 통일교 교인으로 알려지면서 교회 전체가 일본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초심자의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한, 일본인은 짧은 휴식과 엄청나게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한 압박감도 상당합니다. 긴 근로 시간은 교회 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일터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통합적인 사역을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서브의 일본 사역

인터서브는 2018년 일본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3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소수의 후원자를 두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역 교회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쿄 교회와 협력하여서 청년들과 TE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교회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또, 도쿄 지역의 여러 교회와 협력하고 앞으로 더 친밀하게 동역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일본으로 옮겨오거나 취업차 일본으로 이주하는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학교의 설립도 고려 중입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일본의 성도들이 속한 지역과 일터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2. 우리가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그들과 협력하고 일본 성도들과 함께 섬길 새로운 기회가 생기게 하소서.

3.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주셔서 일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4.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번역 도움 : 박지연 프렌즈

왜 일본인가?

박종성 선교사

일본의 기독교 그리고 종교

일본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도를 했지만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중 하나입니다. 일본 인구 1억 2천 400만(2022년 현재) 명 중 기독교인은 1% 미만이며 그중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0.4%입니다. 인구 3만 명 이상의 도시 중 22곳이 교회가 없으며 인구 3만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도 약 550여 곳이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에 7,900여 곳의 교회가 있으며 전체 목회자의 70%가 50세가 넘어 당장 10년 이내에 약 1,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인구 16,000명당 교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의 70%가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불교와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습과 문화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은 다양한 신을 믿고 하나의 종교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약 20여 만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교와 이단과 컬트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며 세계 컬트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사회 문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이것들을 덮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었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적 풍요로움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코올, 약물,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중독이 사회의 주요 문제이며, 아동 포르노의 제1 보급처이고 낙태 등이 아주 당연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살률이 더욱 증가하여 절망감, 고립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문제들에 더해 경제 대국 일본에 빈곤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15%가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정부 통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절망의 문제

일본 사회의 모든 연령대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절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일본인의 11%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은이의 85%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천황 히로히토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 생겼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신이나 종교를 신뢰하는 것이 완전히 절망적이고 회의적이었습니다. 빈곤은 이러한 절망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를 통해 풍족함을 누렸던 많은 일본 기성세대들과 그 자녀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폭풍을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미래가 없는 현재를 의미 없이 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응이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는 예의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일본인에게 복음으로 인해 다가올 책임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청년들은 부모의 가치관과 직업윤리에서 등을 돌리고 현재, 바로 지금의 쾌락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는 바로 모든 '삶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수록,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는 복음이 더욱 빛을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인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회에서 내가 아닌 타인에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선교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위한 선교라기보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총체적 선교'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강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의 교회 안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적 압력이 매우 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15년 동안 저희 가정은 대도시인 후쿠오카의 나고야에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곳은 약 7,000세대(15,000명)가 거주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20여 년 전 세워진 교회가 한 곳이 있고, 주민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 땅을 지켜온 지역 교회와 함께 마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가정, 청소년들에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돕기 위해 성경적 원리를 이용한 카운셀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어린이 등을 위한 무료식당(だ

▲ 10월부터 시작한 한국어 교실

▲ 주일학교

れでも食堂, 누구나 식당) 등을 계획하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이 식당은 지역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심한 거부감은 이 일을 해 나가는데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학교 등과 협력하고 싶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그들은 함께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단하고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남을 위한 삶이 우리 자신과 오가는 이들에게 어떤 울림이 되어주길 기도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일본팀에게는 잃어버린 자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 신실하게 기도할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약 5:16)

거룩함 – 예배를 통해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소서.
지혜와 분별력 – 어떤 것이 참 지혜이고 올바른 것인지 알게 하소서.
인내심과 유연성 – 결과와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유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소서.
건강과 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안과 밖이 모두 건강하게 하소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 자녀들, 부부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지켜주소서.

▲ 누구나 식당

2022년 인터서브 하이라이트

2022년 여러 모양으로 인터서브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후원 덕분에 올 한 해도 인터서브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모든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열방과 공동체를 위한 합창 /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 저녁 8시

2022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온라인 공동체 기도회 '열방과 공동체를 위한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30~4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캠프 / 7월 11일~13일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의 모임이 멈춰버린 지 3년 만에 패밀리캠프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선교사들 간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캔디데이트 스쿨 / 8월 1일 ~ 5일

2022년 상반기에 들어온 신입 선교사 4분과 한 주간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인터서브의 가치와 선교사 삶의 실제 등을 충분히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인터서브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디아 컨퍼런스 / 8월 23일 ~ 8월 26일

여성 싱글 선교사들의 모임이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GROWING TOGETHER, GROWING STRONG"이라는 주제로 13개국에서 사역하는 18명의 싱글 여성 선교사 중에서 8개국에서 일하는 9분이 참여하였습니다.

펀데이 워크샵(2회) / 1월 15일, 8월 19일

펀드레이징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모금 활동에 필요한 사역 소개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홍보활동에 유용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법과 활용법을 실제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와 함께 자라나는 부모 / 9월 1일 ~ 10월 12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자녀를 둔 선교사들이 자녀의 기질을 이해함으로 관계의 단절이 아닌 소통의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함으로 자녀가 가정의 축복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매 기관들과 선교 협약 체결

올해 2월에 감리교 선교국과의 MOU 체결과 5월에는 에스라 성경 대학대학원과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교 교육, 훈련, 선교지 정보 공유 등 더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펀드레이징 프로젝트

파키스탄 홍수 피해 후원, 아랍지역 컨퍼런스 MK 교사 후원 모금과 재정이 어려운 선교사 및 인터서브 본부를 위한 후원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와 후원자분들이 뜻을 모아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46호
2022 Wint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2년 겨울호 통권 146호
발행인 조샘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2. 12. 7.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 • 인쇄 피터폴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Interserv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1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